

북한매체 보도 동향

1. 농업정책

□ 농업정책

- 공동사설을 지켜 올해농사에 집중(로동신문 10.20)
 - 김정일은 “한 알의 낱알도 헛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 들이도록 해야 한다. 벼단꺼들기와 낱알 털기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알곡을 잃어버릴 수 있다”고 말함.
 -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사리원시 미곡, 태천군 은홍, 룡천군 신암, 재령군 삼지강협동 농장을 비롯한 서해벌방농촌들에서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150%이상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둬.
 - 서해벌방농촌들의 당조직에서는 대중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조직적으로 힘차게 가을걷이를 하도록 앞장섰으며 특히 령도업적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앞장 서서 이끌었음.
-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를 다그친다 (로동신문 10.24)
 - 김정일은 “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늘리려면 그 직접 담장자들인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라고 말함.
 - 함주군을 비롯한 함흥벌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뜻깊은 올해 농사에 대한 열정을 안고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 털기에 나섬.
 - 일군들의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과 주도면밀한 작전, 농장원들의 열의로 하여 함흥벌은 가득차 있다. 가는 곳마다 뜻깊은 올해 농사결속을 잘하도록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구호들과 붉은기들이 걸려있고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협동벌에 울려 퍼지고 있음.
 - 벼가을을 제일먼저 끝내고 낱알털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호남, 룡성, 향동협동농장을 비롯한 정평군안의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면서도 한알의 낱알이라도 허실하지 않기 위하여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해 나가고 있음.

○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운동(로동신문 10.31)

- 김정일은 “당조직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 농업근로자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 사업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”고 말함.
- 대중의 열의에 맞게 각지 농촌 당조직과 당일군들은 포전에서 그들의 심리와 정황에 맞게 화선식정치 사업을 보다 참신하고 박력 있게 추진하고 있음.
-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가을걷이에 들어가기 전에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형식의 정치사업자료를 만들어 시, 군과 농촌당조직에 내려 보내어 전투 현장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가게 하였음.

□ 과학영농

○ 기술혁신으로 알곡증산에 적극 기여(로동신문 10.14)

- 안악군 오국협동농장,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, 연안군 오현협동농장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농업 부문에 파견된 일군들이 새로운 품종의 논벼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우렁이에 의한 논벼비배관리방법을 완성하였으며 감자종자연구를 심화시켜 두벌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음.
- 적지선정, 품종선택, 종자처리, 씨뿌리기, 비배관리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과학적 영농방법이 큰 성과를 얻도록 하였으며 목초액과 감자착즙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식물성농약의 효능을 높이고 수직파기계 레이저종자처리기와 같은 능률적인 농기계를 만들어 농업 근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줌.